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05.14, 한-EU연구협력센터>

- EU 집행위원장, 새로운 경쟁력 기금에 연구혁신 포함 가능성 시사(5.12)
 - EU 집행위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집행위가 주최한 행사에서 집행위가 구상 중인 경쟁력 기금(Competitiveness Fund)에 연구혁신 부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시사
 - 세주르네는 “인공지능에서 우주, 청정 기술, 생명공학, 특히 혁신과 연구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 이를 단일 투자 역량으로 재편해야 한다”라고 말함
 - 경쟁력 기금은 보조금, 대출, 지분 투자, 공공 시장 등을 통해 운영될 것이며, 특히 민간 자금 동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됨
- 유럽의회, 차기 EU 장기예산에 연구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촉구(5.8)
 - 유럽의회는 차기 EU 장기예산(MFF)에 독립적인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(FP10)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집행위의 경쟁력 기금 제안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
 -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차기 MFF에서 독립된 연구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지지하며, 경쟁력 기금이 기존 프로그램 통합이 아닌 새로운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
 - 이번 MFF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FP10의 독립 예산화 입장이 강화되었으나, 집행위나 EU 이사회에 구속력을 갖지 않음. 집행위는 2025년 7월 MFF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
- 집행위, 유럽 경쟁력을 위한 기술 인프라 컨퍼런스 개최(5.8)
 - 집행위는 지난 5월 6~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술 인프라에 관한 고위급 컨퍼런스를 개최. 논의는 기술 인프라가 신기술 개발·테스트·검증을 위한 시설·장비·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, 유럽의 산업 경쟁력, 회복 탄력성,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춤. 이는 향후 유럽 연구 및 기술 인프라 전략 수립에 반영될 예정
- (기타) ▲EU 생명과학 전략 발표 앞두고 통합적 접근 필요성 대두(5.13) ▲2025년 MSCA PF, 4억 430만 유로 지원 예정(5.8) ▲호라이즌 유럽의 낮은 성공률과 높은 준비 비용에 연구자들 “신청 부담 크다”(5.12)